

구역예배 순서지

2023.07.05.(수)

-일 시 : 정해진 날 -장 소 : 정해진 장소 -인 도 : 구역장 또는 강사

● 목상기도/각 자 ● 기 원/인도자 ● 신앙고백/사도신경

● 경배찬송/새304장(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기 도/가족 중에서

● 주일말씀과 삶의 나눔/주일예배 말씀의 은혜와 삶을 서로 나눕니다.

● 성경봉독/누가복음(눅)15:11-32(신p.122) /구역원 중에서

● 말 씀/“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분”

1.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2절)

그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아버지께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그가 신21:17에 나오는 재산상속의 율법을 잘 알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신 21:17에 따르면 맏 아들은 다른 아들들이 받는 분깃의 두 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절에 등장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전 재산의 1/3을 요구하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요구는 사실상 관례와 예외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臨終)이 임박할 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대의 아버지들은 재산을 자식에게 정식으로 상속해 주기 전까지는 적당한 재산을 자식들에게 선물로 주곤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한 것은 평상시 아버지가 준 선물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불순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관례를 무시한 부도덕한 행위였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성급한 목적 성취에 치우쳐 부모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패역한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인내와 경건 생활에 박차를 가해 성도 본연의 자세를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어디에 사용하였습니까? (13절)

그는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두 허비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먼 나라로 떠난 것은 그가 얼마나 부모의 품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싶어 했는지를 또한 그 계획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모두 허랑방탕한 생활에 소비해 버린 것은 그가 계획한 모든 생각이 육적인 쾌락을 향해 있었음을 증명해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청운의 꿈을 가지고 먼나라로 갔지만 그곳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을 받아 타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는 걸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종국에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보장되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앞에 굴복하는 패망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뚫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에 더욱 확신을 가지며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류를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3. 큰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25-32절)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니 음악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종에게 물으니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 온 것이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노하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나와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큰아들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김없이 행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내 벗과 즐겁게 하신 적이 없더니 살림을 친구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은 돌아오매 살진 소를 잡으셨나이대라고 통명하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며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전혀 기쁘지도 않고 그의 잘못을 정죄하며 잔치를 벌인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니 얼마든지 친구들과 즐기 위해서 염소를 취하여도 되지만 그는 종처럼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만 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살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이미 주었다는 것도 몰랐고 작은아들을 기다리시는 마음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도,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큰아들 같은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만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죄인들과 교제하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집 밖에 있거나 집 안에 있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탕자이고 탕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집 나간 탕자일 수도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 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돌아온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비유를 보면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가 더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다 귀중한 아들들이고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 곤고하고 황폐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 나눔과 기도/다같이

1. 말씀의 거울을 통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둘째 아들과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질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2. 후반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젊은 세대들과 함께 하소서.
3. 믿음과 은혜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4. 코로나로 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영육간 삶이 회복되어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5. 연약하고 병약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도와주소서.
6. 송림1,2동지역 재개발사업이 속히 잘 진행되고, 교회부지 위치도 잘 되게 하소서.
7. 우리 교회가 동구와 인천과 온 세계를 향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8.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남북도 평화통일이 속히 오게 하소서.

● 마무리 기도/말은 자 중에서

● 파송찬양/새312장(통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 주기도문/다같이